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 집권 2기

## 인도네시아 비전, 5대 목표·4대 사명·16개 정책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월 14일(일) 보고르군 센폴컨벤션센터에서 ‘비전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의 대선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5대 목표 4대 비전 16개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9 대선 총선 당선자 대회에는 내각장관, 지지 정당원, 자원 봉사자와 함께 부통령 당선자인 마루프 아민 부통령 당선자와 영부인 Iriana Joko Widodo 여사, 마루프아민 부통령 당선자의 부인 Wury Estu Handayani 여사도 참석했다.

이날 2019 대선 총선 당선자 대회에 앞서 전날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수비안또 총재는 남부 자카르타 MRT의 르박불루스역에서 대선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했다. 이 자리에서 뿌라보위 수비안또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해, 조코위 대통령 집권 2기 초반부터 야권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민족단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의 비전 인도네시아 발표에서 유일한 국가의 이념으로 뿌라실라를 다시 선언했다. 유일한 국가의 이념으로 뿌라실라 선언은 통일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이데올로기인 이슬람국가 킬라파를 차단하고자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비전 인도네시아’에서 제2기 집권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전국 인프라 건설을 계속한다.

둘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개발한다.

셋째, 국민들이 일자리를 위해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

넷째, 투자자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과 관련 법률을 간소화한다.

다섯째, 국가 예산에 맞게 목표를 정하고 국가 예산 사용을 확실하게 한다.

마루프아민 부대통령 당선자도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도네시아 건설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단결하여 국가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유일한 국가 이념인 뿌라실라를 거부하며 방해하는 단체에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며 어떠한 관용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야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원한을 갖거나 모욕을 하지 말라”고 KOMPAS 신문이 7월 15일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제2기 집권에 따른 4대 사명을 천명했다.

첫째, 인도네시아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한다. 둘째, 공평하고 균등한 국가를 건설한다. 셋째, 인도네시아 문화를 성장시킨다.



<지난 7월 14일(일) 보고르군 센폴컨벤션센터에서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비전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의 대선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5대 목표 4대 사명 16개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넷째, 국가는 청렴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신뢰하도록 관리한다.

4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16가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임신부와 아이, 학생들이 건강을 관리한다.
2. 출산 산모와 아기 사망을 줄이고 어린이 성장 발달을 위해 지원한다.
3. 교육 수준을 향상한다.
4.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발전시킨다.
5. 인재양성기관을 설립한다.
6. 재외 동포 인재를 지원한다.

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 경제구역과 관광지, 농수산업을 연계한다.

8. 국가 예산은 국민번영을 위해 사용한다.

9. 뿌라실라를 유일한 국가이념으로 삼는다.

10. 다양한 종교, 문화, 종족을 포용한다.

11.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12.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간소화한다.

13. 공무원을 개혁한다.

14. 정부조직을 개혁한다.

15. 문제가 있는 정부 기관을 정리한다.

16. 공무원 사고방식을 개혁한다.

이에 법과 인권 운동가들은 ‘비전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의 대선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법률과 인권 문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평했다. katadata는 보도에 따르면 사법교정개혁 연구소 ICJR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Reform)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강화에 기반한 국가 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Wakil Ketua Tim Kampanye Nasional (TKN) Arsul Sani 담당자는 “연설은 30분 제한된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연설은 공동체에 관심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 문제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및 인권 문제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A2>

### 자바베카 공단에서 사업을 확장하세요

총면적 5,600 ha	2,000 국내 및 다국적 기업	100만명 근로자	30개국 외국인 투자기업	28개 쇼핑센터
16개 교육기관	10,000 재학생	4,500 골프 손님	9개 호텔/아파트	18개 공공교통시설

**JABABEKA PHASE 1** Dan 08222 911 2009  
**Phase 3** Febby 0817 680 8445  
**Phase 6** Danielle 0812 7188 2786  
**Phase 2** Jacky 0812 3090 6238  
**Phase 6** Michelle 0878 6223 0181  
**Phase 7** Tian 0811 8888 811  
**Phase 6** OYAN 0822 2911 3008

Cikarang Dry Port, Bekasi Power, Waste Water Treatment Plant, Water Treatment Plant, Jababeka Innovation Center, Jababeka Golf & Country Club, Jababeka Supporting Business Center, Jababeka Start Up Center, New Cluster Block B5H Jeanne 0812 156 013, Toll road exit KM 34.7, Toll road exit KM 31, Toll road exit KM 29.

4.0 READY, AI, IoT

**JABABEKA INDUSTRIAL ESTA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JSmart

021 893 4350  
 0812 8309 0900







## 120주년 맞은 계명대, 버카시 봉사활동에 구슬땀



### 봉사단, 학교 시설개선과 지역주민 자립교육에 미성 기계 전달

대구계명대학교(단장 김용일)와 계명문화대학교(단장 박상화) 봉사단은 인도네시아 자바 팔레스호텔과 공동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짜카랑 지역 Serta Jaya 1 초등학교와 Serta Jaya 5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월 봉사 활동에 이어서 계명대 교수, 임직원 및 학생 44명이 중심으로 자바팔레스호텔 임직원이 합류했다.

Serta Jaya 1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내외벽 도색공사, 교실 외벽 벽화 작업, 책걸상 보수 공사, 천정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패션디자인과로 구성된 봉사단은 재봉기술을 전수하고 미성 기계 11대를 기증해 자립 발판을 만들도록 해 주었다.

계명 문화대 교수 임직원과 학생 31명은 Serta Jaya 5 초등학교 교정 작업에 땀을 흘렸다. 봉사단은 교실 내외 벽 도색공사와 벽화 작업, 책걸상 보수, 천정 보수, 화단 재 정비로 교내 환경을 말끔히 정리해 주었다.

계명대 봉사단 관계자는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교수 임직원과 학생 그리고 현지에서 자바팔레스호텔 임직원이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환경의

시설 학교 교정을 정리하고 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에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정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하계방학 기간 동안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산하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동산의료원 등 3개 기관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국외봉사

활동에 나섰다.

지난 2019년 5월 창립 120주년을 맞은 계명대는 매년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해 국외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계명1% 사랑나눔기에서 한화 1억 2,660만 원과 미화 36,000달러, (사)계명문화 1퍼센트사랑의손길에서 한화 1000만 원,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에서 한화 2000만 원과 의료 3,100만 원 상당을 후원 받아 진행된다.

<동포사회부>



## 8월에 한국-인도네시아 운수권 항공회담

운수권 합의 위한 항공회담 8월 13~14일 서울서 열려

한국-인도네시아 간 운수권 증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오는 8월 13~14일 서울서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운항 횟수 및 노선을 정하는 ‘운수권 합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운항 횟수 증대, 부산(김해)~자카르타 직항편 신규 개설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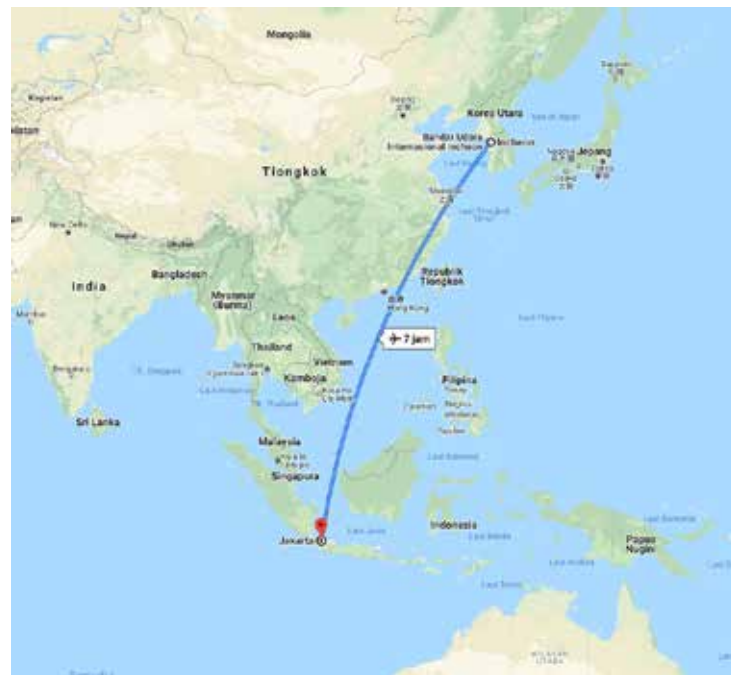
현재 파악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운수권은 총 45회로, 이중 33회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3회, 인도네시아는 9회의 운수권이 남아 있다.

기존 정규편 운항 외에 항공 운수권 회담에서 자카르타 주 7회(매일 운항), 발리 주 3회 운항 등이 추가되면 양국에서 약 20회 정도의 운수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증대가 결정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하늘길은 지난 2012년 6월 이후 7년 만에 넓어지게 된다. 2012년 당시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각각 1개 국적사(대한항공·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만 취항할 수 있었던 것을 복수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자카르타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주당 19회였던 운항 횟수도 32회로 늘었다.

특히 운수권 증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다. 에어부산을 비롯한 LCC들은 이전에는 인도네시아로 띄울 마땅한 비행기가 없었으나, 최근 항공 거리가 늘어난 신형 항공기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중장거리 노선 경쟁에도 뛰어 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부산~자카르타 직항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인도



네시아 및 브루나이와의 항공회담 개최를 건의하는 등 부산~자카르타 직항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기존 운수권 미사용분의 향방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측은 미사용분 9회의 운수권 선점을 위해 부산~자카르타, 부산~발리의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외에도 인니 최대 LCC 라이온에어 또한 전세기 형태로 한국 취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 수가 4위인 데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특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높다. 한국에서도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이 인도네시아 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아 인도네시아 관광청 한국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에서 6시간 미만으로 닿을 수 있는 지역 중 상품성이 높은 지역으로 마나도(술라웨시), 소롱(라자 암

팟)을 꼽을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동부에 위치한 두 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 필리핀 바로 아래에 있어 저비용항공사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라자 암팻은 경우 전 세계에 분포된 산호 종의 75%가 몰려있는 ‘산호 삼각지대’의 심장부로, 1,508 종류의 어류, 537 종류의 산호, 699 종류의 연체동물류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현재 대한항공이 인천~자카르타 7회, 인천~발리 6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자카르타 7회를 운항 중이며, 평균 탑승률은 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도 현재 인천~자카르타 7회, 인천~발리 6회를 운항하고 있다. 7월 중에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인천~발리를 데일리 운항으로 변경, 운수권을 총 14회 사용할 예정이다.

## PT. FREIGHT CARGO LOGISTICS



### ■ 해상운송

- Neut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edung Perkantoran Pulomas Satu, GD.3 LT.3 R.10  
JL. Jend. A. Yani No.2, Jakarta Timur  
TEL. 021-475 4547,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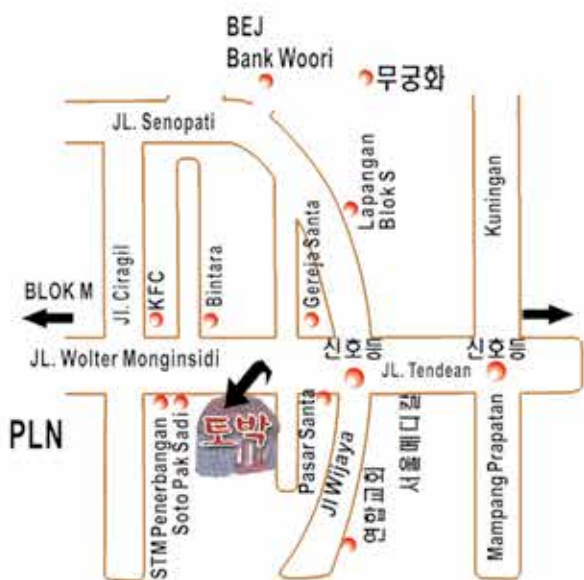
새로운...  
맛이 보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 토박



- 새로운 메뉴 •
- 콩나물삼겹살
- 녹차고등어김치조림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Selatan  
예약전화

Tel : 725-1135, 7278-0055, 7280-0753  
Fax: 720-3642 HP.0858-1412-5338



## 조코위 대통령, 뿌라보위 총재와 MRT 회동

뿌라보위 총재 출구전략과 조코위 화합정치에 불가피한 회동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결과 불복선언으로 법정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뿌라보위 수비안토 총재와 대선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과 그린드라당 뿌라보위 수비안토 총재는 7월 13일 MRT Lebak Bulus 지하철역에서 만나 기자회견과 기자회견 후 점심 함께 먹으며 화해했다. 지난 5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PU는 조코위 후보가 55.5%대 44.5%로 당선했다고 발표했지만, 뿌라보위 후보측은 불복 선언 시위로 9명이 숨지고 900여명이 부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선 이후 출구전략이 필요한 뿌라보위 총재와 국민화합으로 집권2기를 시작하는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포용으로 보인다



## 주간 단신

### ■ 술라웨시 자와 연쇄 강진발생

발리 누사두아에서 83km 남서쪽으로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91.6km로 6.0 강진이 발생해 발리 주민들이 놀라 대피했다. 북말루루 해상에 일주일 간격으로 7.2 강진이 발생했다. 7월14일 오후 16시10분 북말루루 할마헤라해상(Labuha, Pulau Bacan, Maluku Utara)에 7.2강진 발생했지만 쓰나미조기 경보는 없었다.

이날 강진은 지난 7월 7.1강진 이후 7일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지난 7월7일 22시 8분에도 술라웨시섬 북동쪽 말루루 해상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가 2시간 만에 해제했다.

### ■ 콘테이너 선박, 운전미숙으로 크레인과 충돌

7월14일 스마랑 탄중마스 항구에서 콘테이너 선박이 접안중 운전미숙으로 크레인과 충돌해 크레인이 인근 크레인 3대와 대기 중인 콘테이너를 덮치는 사고 발생했다.

### ■ 국인 3명부상

교통부(Kementerian Perhubungan -Kemenhub)는 인도네시아동부시간 7월 14일(일) 14시3분에 Bandara Internasional Lombok Praya 공항에 착륙하려던 헬기가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헬기추락사고로 외국인 3명이 부상해 현지병원에 입원했으며, 부상자는 Luka Marie (독일Jerman), Nicholas Alexander (영국Inggris) serta Donoso Lillo (칠레Chile)이다.

한편, 지난 6월 28일에는 파푸아 산악지대에서 12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군 헬리콥터가 실종됐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 ■ 북부 수마트라 이틀동안 우박소동

지난 7월 7일과 10일 북부 수마트라주 5개마을과 아체지역에 떨어진 우박이 30분동안 쏟아져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지 손가락만한 크기의 우박이 마을에 쏟아져 눈처럼쌓였고 이후에는 폭우가 내렸다.

### ■ 중국 전기차 공장 인니이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

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불확실성을 피해 인도네시아로 생산공장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리드와 자말루딘 해양조정부 차관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와 JAC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한다”며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BYD는 이미 현지기업 파트너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말루딘 차관은 “정부는 서부 자와를 투자처로 제안했지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차량 소유주 변경 세금(BBNKB) 12.5% 올려

인도네시아자동차공업협회 GAIKINDO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 정부가 연내 시행하려는 차량 소유주 변경세금(BBNKB) 인상이 차량 판매를 줄일 것”이라고 지난 7월1일 밝혔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차량 소유주 변경시 세금을 10%에서 12.5% 올리겠다고 주의회에 상정했다.

## 2050년 전세계 도시 3/4 기후 완전히 달라질 것

2050년이 되면 전세계 520개 주요 도시의 4분의 3은 완전히 달라진 기후를 맞이할 것이라 경고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 크라우더 연구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안정화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4도 가량 오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을 했음에도 이 같은 ‘놀라운 기후 변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샌프란시스코는

2050년엔 지금의 포르투갈 리스본과 비슷한 기후가 될 것이고 뉴욕시는 지금보다 4도 가량 올라 버지니아비치처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북부 지역 도시들의 2050년 기후는 현재 지구상에서 1000km 남쪽에 있는 도시와 같아진다는 것이다.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20%의 도시는 현재 지구상엔 존재하지 않는 가뭄과 열대우림 사이의 기후를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대 지방은 비교적 기후 변화가 적지만 그럼에도 점점 더 우기와 건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역시 2050년 여름은 지금보다 3.5도 높아지고 겨울은 4.7도 더 낮아져 폭염과 혹한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지금 기후변화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50년 뒤엔 구워져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신농씨 한방병원 건강칼럼

## 열대기후 속 온열병과 냉방병 예방관리법

본격적인 건기로 접어들면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건기 중에서도 비가 거의 오지 않은 매우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무더위에 더위를 먹고 기력이 떨어지거나, 체력보충이 필요하거나, 혹은 일사병·열사병 또는 냉방병에 걸렸으며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무더위에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며 아이의 열을 식혀주는 보약을 찾는 부모도 종종 찾아옵니다.

본래 한국에서도 여름철에는 세심한 체력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도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건강관리가 어려모로 쉽지 않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이 길어 활동량은 늘어나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열대야에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쉬워 피로감이 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계속 무덥기 때문에 그 만큼 건강유지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체력이 소진됩니다.

열대기후의 열기는 땀구멍을 여닫는 ‘위기’(衛氣)를 소모시켜 땀 배출량이 늘어나게 합니다.

적당한 땀 배출은 체온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칠 경우 체내 전해질을 손실시켜 수분·전해질 부족으로 이어져 주의해야 합니다.

더위를 먹었다면 머리가 아프고, 입맛이 떨어지며, 몸에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해지고, 경



우에 따라 땀이 비 오듯 흐르기도 합니다.

움직일 기운조차 없다면 이미 기가 크게 상한 것으로, 이럴 때는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각20g씩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달여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야외활동으로 더위를 먹었다기보다, 지나친 냉방과 찬 음료를 많이 마셔 ‘냉방병에 시달린다며’ 병원을 두드리는 환자를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더운 날씨에 과하게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오히려 땀이 증발하지 못해 몸이 무거워지거나,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감기증상과 함께, 뼈마디가 쭈시고 가슴이 답답한 몸살, 복통·구토·설사가 나기도 합니다.

냉방병은 흔히 현대에 들어 새로 생겨난 질병으로 여겨지나, 동의보감에도 ‘중서’(中暑)라는 여름병에 대한 내용 중에 냉방병과 유사한 개념이 언급됩니다.

중서의 한 종류인 ‘음서’(陰暑)에 대해 ‘서늘한 정자나 차가운 물 속에 오래 있는 등 과한 피서로 생긴다’고 설명돼

있는데, 이처럼 동의보감에도 현대의 냉방병에 해당하는 원인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 차이를 5~6도가 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단백질·비타민이 풍부한 보양식품을 먹는 게 증상개선에 유리한데, 대표적으로 닭고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무독해 심한 갈증이나 설사 등을 개선하고, 내장의 정수를 보충해주고 양기를 북돋아주면서 소장을 따뜻하게 합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약재는 인삼과 황기인데, 인삼은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처질 때 기운을 나게 하고 황기는 땀 분비를 조절합니다.

또 너무 찬 음료를 달고 살기보다, 찬물로 입을 행귀내는 정도로 음용하는 게 좋고, 샤워도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오히려 더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해가 진 이후 하루 20~30분씩 가볍게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사병	열사병
심부 체온	≤ 40°C	> 40°C
정신 상태	- 정상 - 30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어지러움증과 약간의 정신 혼란, 즉시 회복되는 실신	- 비정상 - 성망, 발작, 의식소실, 경련, 어눌함
호흡계	정상 또는 빠른 호흡	정신 혼란과 동반된 느린 호흡 또는 빠른 호흡
순환계	- 정상 혈압과 빠른 맥박 -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탈수	- 저혈압과 빠른 맥박 - 중간 또는 심한 탈수
피부	땀으로 축축함	건조 또는 땀으로 축축함
그 외	구역감 및 구토, 두통, 피로, 위약	구토와 설사, 횡문근 용해증, 급성 신부전, 심인성 쇼크, 간기능 부전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기업법무, 투자 & 비즈니스컨설팅, M&A, 송무, 개인법무.

부동산, 자원개발, 지식재산권, 파산관재.

Corporate, Investment & Business Consulting, M&A, Litigation, Arbitration, Private, Property, Natural Resources, IPR, Curator

yisngmin@gmail.com, yisngmin@centrin.net.id

Tel. (62-21)525-5959, 527-2422, Fax. (62-21)527-2423

MP. (62)816-1911245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대표변호사 이승민, YI SENG MIN, SH, MH

무료 법률상담, Free Legal Consulting

• 주일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Jl. Wijaya I No.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Tel. (021)720-5979, MP. 0816-1911-245

• 화요일 : 오후 2시 - 4시 [Jakarta 무역관] Wisma GKBI Suite 2102, Jalan Jenderal Sudirman No.28 Jakarta Pusat, Tel. (021) 574-1522

신농씨한방병원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진료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장소(간다리아 부근)로 이전했습니다.

\*진료과목

급만성통증(요통,전통,두통,무릎통증)

각종 내과질환(소화기,호흡기 전문)

심장병,중풍 클리닉

소아성장,수험생 클리닉

부인과 클리닉(갱년기 증후군, 생리불순, 불임)

면역강화 프로그램(찾은감기,설사,만성피로)

Pondok Indah

Jl. Sultan Iskandar Muda

Gandaria City

Park 1

Jl. Gandaria I

Simprug Bridge

Botanica

Simprug Terrace

신농씨한방병원

평 일 - 9:30 ~ 6:00 (목요일은 12:00까지)

토요일 - 9:30 ~ 3:00

일요일 - 오후 1:00 ~ 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원장 최정(한의사 면허번호 12721)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석사

대한 한의학회 방제학회 회원

대한 한의학회 면역약침학회 회원

네이버 밴드에서 '신농씨 한방병원'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건강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Jl. Sultan Iskandar Muda No.60 (아리따움 치과 1층)

전화번호 : 021-725-1801 081-2224-1075(한방치료)



## 내년 최저임금 5.5% 인상한 베트남... 현지진출기업 인건비 부담은

2017년부터 한자릿수 인상률...현지기업 "사회보험 등 실제 인건비 부담은 더 커"

베트남이 내년 최저임금을 5.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KOTRA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6월 14일에 정부, 사용자, 노동자로 구성된 3자 논의에서 노동자측인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은 8.18% 인상안을, 사용자측인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2%대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추가 논의에서 양측은 각각 6.7%, 4% 인상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20년 5.5%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 ◆ 6.7% vs 4% 인상안 제시...5.5%로 결정

이번 임금 인상 결정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지역별로 최소 15만 동(7635원)에서 최고 24만 동(1만 2216원)까지 상승한다.

지역별로는 호치민시,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가 포함돼 있는 1지역이 월급여기준으로 442만 동(22만5000원), 2지역 392만 동(20만원), 3지역 343만 동(17만5000원), 4지역 307만 동(15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참고로 베트남은 63개시·성을 1~4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임금인상안에 대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조안머우집(Doan Mau Diep) 차관은 “현



<베트남 근로자들. 사진=VNA/연합뉴스>

재 최저임금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최소생계수준 95%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임금 인상 결정으로 그들의 삶이 좀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측인 베트남 노동총연맹 노동관계국 레딘광(Le Dinh Quang) 부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의 부담을 높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 합의안이 6%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5%는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중간지대(middle ground)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인 베트남 상공회의소 황광풍(Hoang Quang Phong) 부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는 재계에 반갑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기꺼이 공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 최근 한자릿수 인상률...사용자 "실제 부담은 더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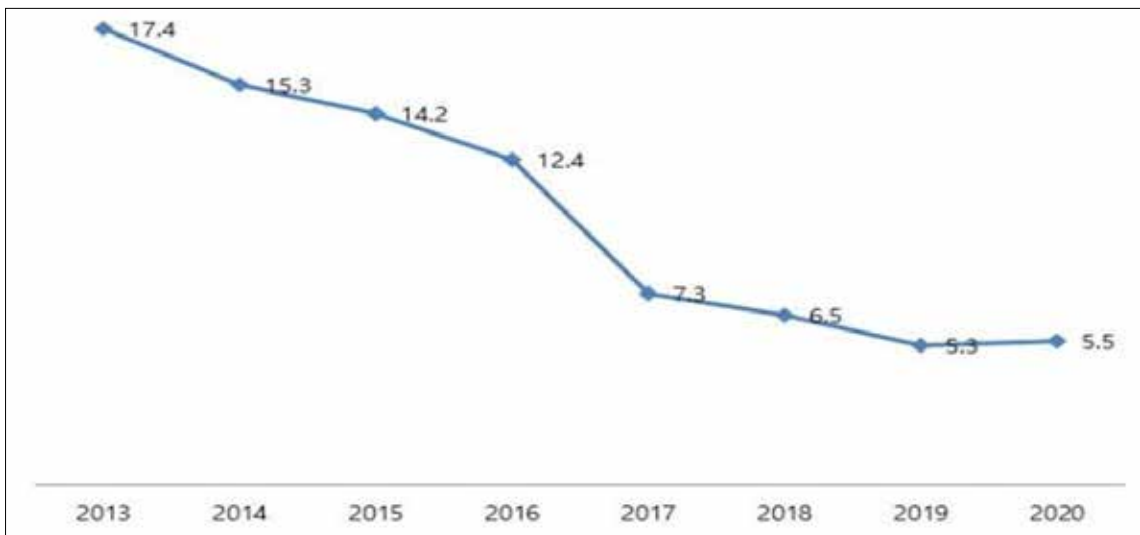
최근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은 하락 추세로 2017년부터 한자릿수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이번 5.5%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은 베트남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인 4%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평가이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고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비용 등을 합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KOTRA 호치민무역관은 “최근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추가근무시간 증가가 올해 10월 국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사용자들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지만 생산성은 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 베트남 땅값.인건비 상승.. 글로벌 의류업체 '울상'

갈수록 높아지는 임금 부담인데  
하이테크 기업들 이전으로 비용부담 상승



베트남에 전세계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글로벌 제조공장이 되는 모습을 탐탁치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산업이 의류업체들이다.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전자제품 업체들로 인해 노동집약 산업인 의류업체들은 '임금'과 '부동산 가격'의 동반 상승압박을 받고 있다. 1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애플, 삼성, LG 등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임금이 올랐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 의류 제조업체들은 베트남에서 생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면서, 확장 계획을 미루려고 하고 있다. 현재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같은 의류업체들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있다. 그러나 애플, 델, 구글, 아마존 등 전자부품 및 장비 공급 업체들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지를 찾으면서 현지 노동임금 및 부동산에 대한 경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GAP, Walmart, Zara 및 H&M의 주요 제조업체인 Makalot Industrial은 베트남에서의 확장 계획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전체 생산규모의 37%를 차지하는 Makalot의 최대 생산기지다.

그러나 이 회사의 대표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ike, Under Armor, Lululemon과 같은 고객사를 두고 있는 대만 최대 스포츠웨어 제조업체인 Eclat Textile도 베트남에서의 영업 확장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Lo 부회장은 “향후 다른 지역이 생산기지로 확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Eclat의 생산라인의 대부분은 대만과 베트남에 있다. 9500만의 인구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접근성 덕분에, 베트남은 의류 및 신발회사들의 생산기지가 됐다. Makalot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 생산량은 전체에서 4%에 불과하며, Eclat Textile은 지난 2016년말 중국 공장을 폐쇄했다. 현재 베트남의 최저 임금은 지난 10년간 100만 동(43달러)에서 418만동으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중국보다는 낮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모든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연간 10% 이상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금도 기본급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Nike, Adidas 및 다른 유명 한 국제 브랜드 뒤에서 스포츠

신발을 생산하는 Pou Chen 대변인은 “베트남의 토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화 신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베트남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개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8년 한해 동안 Pou Chen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신발 3억2600만 켤레 중 46%를 생산했다. 그러나 2019년 1~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산량은 43%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은 작년 동기대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서 41%로 증가했다.

Pou Chen 대변인은 “그렇다고 베트남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베트남보다 임금이 낮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기업들의 경우 베트남을 떠나 기반시설을 라오스나 미얀마로 옮기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인근국가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12. 31>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61조의2제2항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 (기호)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기타(G-1)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국으로 출국했던 기간을 합산한 것이 30일이 넘으면, 한국에서의 6개월 체류로 보지 않게 되어 건강보험 당연가입에서 제외된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6항).

다만 유학생의 경우, 즉 대학교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6개월 체류와 관계없이 입국한 날째에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장기체

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3항, 제1항 제1호 나목).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학생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통해 민간보험사에서 월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월 6만원(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된다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2 제4호 다목 참조)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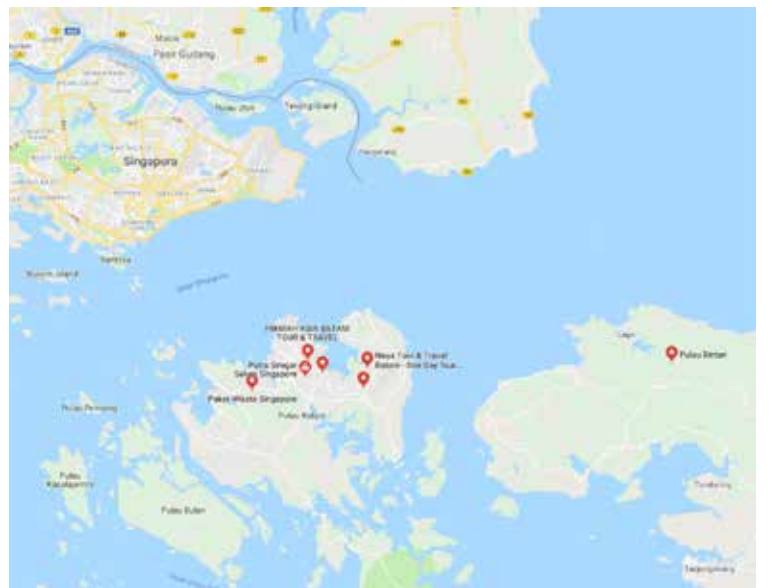
것은 부당하며, 입국일에 바로 당연가입되는 부분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대학교 외국 유학생 담당자의 청원이 올라왔었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며칠 전인 2019. 6.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예고(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유학생에 해당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은 2021. 2. 28.까지 일단 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6개월 체류와 관계없이, 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은 날 또는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바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점을 유익할 필요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항 제1호 나목).

## 싱가포르-빈탄-바탐 7Km 교량 건설

최장 해상 교량...물류비용 절감·관광산업 확대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인접 빈탄섬과 바탐섬을 연결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7km 다리를 건설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4조 루피아를 투입해 3~4년에 걸쳐 빈탄섬과 바탐섬 사이에 다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 광고 및 구독 문의

**HanInPost**  
한인포스트

PT.Hannahpress Indonesia  
Tel: 021-4586-9199, 4586-9057  
Fax: 021-4586-9198, HP.0812-1004-999  
e-Mail: haninpost@gmail.com  
www.haninpost.com



## 한국고깔협회-한국천연염색박물관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

인도네시아 한국 전통 고깔문화 효과적 전파 기대돼

‘한국전통고깔문화협회(회장 허복구(Heo, Buk Gu), 이하 한국고깔협회)’에서는 6월13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전통고깔문화협회(Korean Traditional Flower Hat Cultural Association)는 농악대의 고깔 등 한국 전통 문화의 보존, 해외 보급 및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하는 문화상품, 패션 상품을 연구하는 단체로 그동안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한국 전통 고깔쓰기 체험을 진행해 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니문화연구원’은 한국 전통문화를 인도네시아문화와 콜라 보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전통과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한국인)에 알리며 양국 문화 교류에 앞장서왔다.

따라서 한국전통고깔문화협회와 ‘한·인니문화연구원’ 업무협약은 한국전통고깔문화를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고깔협회제공)



### 한인니문화연구원,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MOA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지난 6월 13일 한국천연염색박물관(관장 김왕식)과 MOA를 체결하였다. 천연염색박물관은 2006년 9월에 개관한 한국 유일의 공립1종 천연염색 전문박물관이다.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염색 작품

의 전시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8년 8월 17일 한인니문화연구원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과 업무협약(MOU)을 자카르타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맺은 바 있다. 이번 천연염색박물관과의 MOA는 천연염색재단과 맺은 업무체결의 한걸음 더 나아간 합의각서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 교환 외에 인도네시아에서 바틱 염색의 연수 및 천연염색 작품 전시 등 천연염색 활동에 대한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포함됐다. 협약에 앞서 사공 경 원장은 2019년 천연염색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교육 훈련생 (전라남도민)에게 바틱 강의를 하였다.

(한인니문화연구원제공)



##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 상반기 한국어 과정 수료식 성료

영화 ‘말모이’ 보며 함께 웃고 웃은 수강생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 직영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은 지난 7월6일(토)에 상반기 한국어 과정을 마무리 하는 수료식 행사를 가졌다. 지난 2월 16일(토)에 시작한 이번 학기에는 정규 강좌인 세종한국어 수업 외에도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세종한국어 회화, 비즈니스 등 수업이 개설되어 450여명이 32개 반에서 강의를 수강했으며, 이번 수료식에는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반기 수료식은 소풍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동고동락한 같은 반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인솔자들은 수강생들에게 김밥과 음료수를 나눠 주면서 소풍 분위기를 한껏 더했다. 수강생들은 K-POP 노래자랑과 게임을 즐기며 학기를 마무리하는 날에도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함께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롯데시네마 파트마와티점에서 개최된 이번 수료식에는 KSIC 학당장, 교원, 운영요원 및 수강생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한 학기간의 재미있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담긴 기념영상을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열성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시느라 애쓰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반 대표들이 수료증과 성적표를 받았으며, 이어 우수학습자에 대한 시상의 시간을 가졌다. 17주간 지각 없이 100% 출석한 성실상, 반 대표로 애쓴 모범생, 반 최고득점자인 훈민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수상자를 호명할 때마다 모두 함께 큰 환호성과 박수로 뜨겁게 축하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학당에서 봉사해준 3명의 학생 인턴들과 결혼이민비자 수강생들에 대한 증정서 전달도 있었다.

뒤이어 수강생들은 인도네시아 미개봉작인 영화 ‘말모이’를 관람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에 한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말모이’를 함께 감상하며 수강생들은 함께 웃고 웃었다. 수강생들은 영화가 끝나고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 사람들이 겪은 슬픔에 마음이

아팠다”며 숙연한 모습을 보였고, “영화를 통해 한글, 한국어가 힘들게 지켜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어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수강생들이기에 영화 ‘말모이’의 내용에 더욱 크게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영화 관람을 마치고도 한참이나 수강생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한 학기 동안 같은 반이었던 수강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랬다.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수료식 행사를 마무리했다. KSIC 하반기 학사일정은 8월 18일(일)에 시작한다.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하반기 수료식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GLOBAL  
LOGISTICS  
PROVIDER

We provide the optimum solution and customized service with smart logistics system.

KGL

Global Logistics Provider

PT. KGL Indonesia

The Prime Office Suite TWR LT7 Suite 7A

Jl. Yos Sudarso Kav. 30, Sunter

Jakarta utara, Indonesia 14350

Tel. +62-21-2265-4188

Email : korean@kglijkt.com

http://www.kglnetwork.com

WE ARE INVITING

KMK 그룹

한국인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공고

KMK 그룹은 나이키, 컨버스, 오프 화이트, 헌터 제조업체입니다

★CONVERSE

Off-White™

HUNTER

- 모집 부문 -

개발, 생산

- 지원자격 -

영어 또는 인니어 가능자 / 능통자 우대

장기 근무 가능한자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

군필 및 면제자

- 근무조건 -

인턴 3개월 후 정직원

- 제출 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서류 검토 후 개별 면접 통보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접수 방법

recruit.kmkgs@gmail.com

접수 기간

7월 31일까지

Join us!

www.kmkgs.co.id



장박사의 청소년 진로진학칼럼 (21)

2020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경향 분석

2020학년도 대입전형이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입전형의 첫 시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부터다. 올해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7월 원서접수가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7월 10일에 마감한 상황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7월 원서접수와 9월 원서접수로 구분하며, 대학은 이 기간 중 3일 이상을 원서접수하면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적고, 지원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원서접수 후 지원경향을 분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올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원서접수 마감 현황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경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경향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주요대학의 지원자수가 많았고, 3년 중·고 해외이수자의 경우에는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 높았다. 또한, 서울 근교에 있는 비인기 대학교나 지방 대학교의 경우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낮았다.

흔히 말하는 ‘IN서울’의 경향은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높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전년도 3년 중·고 해외이수자를 선발하는 전체 대학교의 선발인원은 약 4,000명이었고, 수험생들의 지원 횟수는 약 12,000회였다. 수시 모집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대체로 모든 횟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국의 일반학생들은 6회 중 4.8회 정도를 지원한다.

따라서, 12,000회를 4.8회로 나누면 지원자수는 약 2,500명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4,000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자는 2,500여명 정도인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12개 주요대학에 올해 지원횟수 5,525회는 전년도 12,000회의 약 46%에 해당한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서울 주요대학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도 동국대 등 몇 개의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원자수가 늘었고, 특하나 건국대가 전년도 59명에서 185명이 더 늘어 전년도에 4배에 달하는 244명이 지원했으나, 동국대의 경우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대폭 지원자수가 감소했다. 또한,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여대도 전년도보다 소폭 지원자수가 감소했다.

2. 12개 주요 대학의 전년도 및 올해 지원 현황  
3. 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3년) 지원경향 분석

구분	2019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모집	지원자	경쟁률	지원자	모집	지원자	경쟁률	지원자
건국대	60	590	9.8	59	60	538	9.0	244
경희대	95	554	5.8	325	95	622	6.5	348
고려대	75	437	5.8	695	75	485	6.5	741
동국대	47	303	6.4	110	54	470	8.7	23
서강대	31	404	13.0	359	31	410	13.2	317
성균관대	67	577	8.6	744	67	665	9.9	829
숙명여대	43	258	6.0	24	43	243	5.7	9
연세대	68	401	5.9	691	68	480	7.1	781
이화여대	60	307	5.1	173	60	233	3.9	155
중앙대	88	728	8.3	517	88	707	8.0	498
한국외대	33	198	6.0	196	33	231	7.0	198
한양대	56	497	8.9	634	56	441	7.9	714
합계	723	5,254		4,527	730	5,525		4,857



**장창곡**  
교육학 박사, JKMS 진로교사,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자료  
개발팀 재외국민전형 담당  
한인포스트 교육칼럼리스트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주요 12개 대학의 경우에 전년도 5,254명보다 271명이 늘어 올해 5,525명이 지원했다. 전년도보다 지원자가 늘어 경쟁률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3년 특례)을 갖춘 학생이 몇 명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황이라 전년도보다 지원자가 늘었다는 것을 ‘해의 근무자가 늘었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필자는 올해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은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3년) 지원 자격 표준화’가 이유라고 생각한다. 올해까지는 해외에서 2년을 근무했어도, 부모님이 모두 같이 살지 않았어도 지원자격을 주는 대학교들이 많았지만, 내년 2021학년도 대입부터는 해외에서 반드시 3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부모님이 모두 같이 해외에서 체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수생을 포함하여 현재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중에서 내년부터는 지원자격이 안되는 경우라면 올해밖에 기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이 이번 원서접수에 합류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12개 주요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학교나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지원자수가 약간씩 늘었다. 물론, 내년에는 지원자격 표준화가 ‘지원자격 강화’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오히려 지원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4.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지원경향 분석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지원자수가 늘었다. 12개 주요대학은 전년도 4,527명보다 330명이 늘어 4,857명이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자수가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것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그 경향이 올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년 전, 한국학교 연합으로 실시된 ‘세계모의고사’의 지원자를 비교해보면 그 경향은 확연히 나타난다. 한국학교 재학생들 중 전교육과정 이수자(12년)가 당시 11학년에 비해 10학년 학생이 약 15%(333명 → 456명)가 늘었다.

물론, 지원자수가 늘더라도 대학교에서는 정원을 한없이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 인원을 제한하여 선발하는 의예, 간호, 수의예, 한의예 등의 학과는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재외국민 특별전형 9월 원서접수 대학교 명단

앞서 설명했듯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시모집은 7월 원서접수와 9월 원서접수로 구분한다. 9월 접수는 9. 6.(금) ~ 9. 10.(화)에 진행되며, 대학들은 이 기간 중 3일 이상을 원서접수하게 된다. 9월 접수에 해당하는 대학 명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학명	지역	원서접수기간	대학명	지역	원서접수기간
가야대	경남	9.6~9.10	영남대	경북	9.6~9.10
감리교신학대	서울	9.6~9.10	영산선학대	전남	9.6~9.10
경동대	강원	9.6~9.10	예원예술대	경기	9.6~9.10
경북대	대구	9.6~9.9	울산대	울산	9.6~9.10
경성대	부산	9.6~9.10	을지대	경기	9.6~9.10
꽃동네대	충북	9.6~9.10	을지대	대전	9.6~9.10
동명대	부산	9.6~9.10	인천가톨릭대	인천	9.6~9.10
동서대	부산	9.6~9.10	장로회신학대	서울	9.6~9.10
동아대	부산	9.6~9.10	전주대	전북	9.6~9.10
루터대	경기	9.6~9.10	충원대	충북	9.6~9.10
부산외대	부산	9.6~9.10	창원대	경남	9.6~9.10
서울기독대	서울	9.6~9.10	청주대	충북	9.6~9.10
서울신학대	경기	9.6~9.10	충신대	서울	9.6~9.10
서울장신대	경기	9.6~9.10	추계예술대	서울	9.6~9.10
선문대	충남	9.6~9.9	침례신학대	대전	9.9~9.10
성공회대	서울	9.6~9.10	칼빈대	경기	9.6~9.10
수원가톨릭대	경기	9.6~9.10	케이씨대	서울	9.6~9.10
순천대	전남	9.6~9.10	한국교통대	충북	9.6~9.10
신라대	부산	9.6~9.10	한국성서대	서울	9.6~9.10
신한대	경기	9.6~9.10	한세대	경기	9.6~9.10
아세아연합신대	경기	9.6~9.10	한일장신대	전북	9.6~9.10
안동대	경북	9.6~9.10	호서대	충남	9.6~9.10

홍승수의 인도네시아 IT 칼럼(11)

2019년 10가지  
IT 키워드(1)

1. 4차산업혁명
2.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
3. 스마트 팩토리
4. 스마트 팩토리 구축전략
5. 봉제 의류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6. 신발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

7.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기술 동향
8. 인도네시아 핀테크(Fintech) 동향
9.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10. 디지털 미니멀리즘



글: 홍승수/  
PT. KOREA TELECOM INDONESIA  
대표이사  
한인포스트 IT 칼럼리스트  
sshong.kti@gmail.com

최근 기술의 발전은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서 뒤쳐질 수 있다. 최근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2019년에 유행하는 IT용어를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Immersive Experience (몰입형 체험)

최근 들어 가상현실 게임 또는 증강현실 기술이라는 용어는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몇년 전 포켓몬 증강현실 게임이 유행하고 또한 가상현실 게임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을 이미 해보았다.

이러한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복합현실(MR - Multi Reality) 기술들은 이미 우리를 생활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 몰입형 체험기술은 게임분야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도 적용되는 기술로 예를 들면 행동학습 로봇, 스마트 안경 등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거나, 작업자의 행동을 학습하여 로봇이 대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인공지능 기술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IT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경험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자발적인 지능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단순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이 아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적 분석, 논리적 분석, 확률적 분석을 통하여 좀더 정확하고 정교한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어 기업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특정 기술의 오류 검증 등에 사용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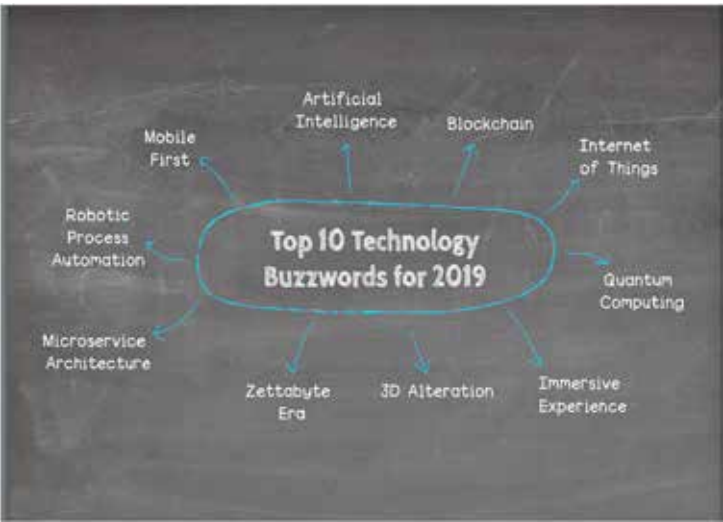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의 단순 기계학습이 아닌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술을 활용하여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심층학습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의료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의 심장과 신경을 연구하는데 적극 활용되어 지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교통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진다.

VOLVO는 앞으로 자동차라는 공간은 인간에게 먹고, 자고,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Alexa, Cortana, Siri와 같은 인공지능기기들은 음성인식을 통하여 쇼핑을 하거나, 가전제품들을 동작시키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등 이미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3. 3D Alteration (3D 인쇄 기술)

수년전 3D프린터가 처음 등장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에 놀랐지만 단순히 시뮬레이션만 만들는데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수년 사



이에 다양한 재료들이 개발되어지면서 3D 인쇄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이미 많은 치과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모조 치아를 제작함으로써 치기공사의 작업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건축분야에서도 활용되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3층짜리 건물을 짓기도 한다. 이제 3D 인쇄 기술은 플라스틱 제품, 주택, 신발, 악세서리, 인체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인쇄할 수 있다.

4.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의심할 여지없이 Internet of Things (IoT)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영향력있는 IT용어 중 하나이다. 이 기술은 점점 더 실체화 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가전제품 매장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TV가 아니면 구형 TV는 더 이상 찾기 어렵다. 스마트 TV는 IoT기술이 적용된 가장 흔한 가전제품이며 이제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일반 가전 제품에도 각종 센서 및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원격에서 제어하거나 좀더 향상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웨어러블 장비, 차량에 부착된 IoT 장비 등이 서로 연동되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며 인간의 삶에 편리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매킨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IoT기술은 2025년도에 세계경제의 11%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IoT기술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및 도시, 국가 기반에도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이다. IoT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 분야에서 Google, Amazon, Apple의 3개 회사가 각각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향후 수년내에 혁신을 통하여 상호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5. Block Chain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란 관리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되어 누구나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Wikipedia)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데이터 블록이 체인화되어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거래 장부이다. 이 데이터 블록 안에는 거래 데이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태로 저장되어있다.

기존의 가상화폐는 은행과 같은 중앙서버에 거래내역을 저장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은 P2P (Peer to Peer) 형식으로 거래가 되고 거래내역을 은행이 아닌 블록에 저장한다.

그리고 이 블록에 한번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곳이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 블록체인은 하나의 컴퓨터에만 저장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동일한 블록체인이 저장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거래 장부를 검사하고 잘못 적히거나 누락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정상적인 장부를 복제해 오류가 있는 부분을 대체하게 된다. 이때 정상적인 장부의 기준은 전체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인정하는 장부이다. 따라서 해킹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러한 강력한 기술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4~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도 블록체인 기술에는 표준이나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암호화폐만 보더라도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에버코인 등 거래가 가능한 화폐들이 무수히 많다.

이들은 다 제각각의 형식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흡수 또는 통일하여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가정일 뿐 암호화폐의 미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현재는 거래의 행위와 시장 확산을 위해 ‘금융업’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래 블록체인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판매, 유통, 계약, 공유 등 개인간 거래를 위한 중개 기술로 블록체인이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금융을 넘어 개인간 거래를 기반으로 공유경제가 블록체인 기술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 숨결을 느끼다」 ... JIKS Korean Day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에서는 지난 7월 12일에 한인동포, 인니현지인 등 300여명을 초대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Korean Day 행사를 체험, 공연, 전시 3개의 마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체험마당에서는 한국의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화전만들기, 얼음집, 원두막 비빔밥 만들어 먹기 등 23가지의 활동이 100여명의 학부모 도우미와 직스12학년들의 자발적 도움으로 재미있고 알차게 운영되었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코너에서는 직스 12학년들이 하루 종일 한복을 입고 전통혼례를 시연하

였고, 가마타기 코너에서는 가마를 직접 타고 옛 양반의 기운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전통음식 코너는 50여가지나 되는 전통 음식과 김치, 과자를 직접 먹을 수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아 시식을 위해 찾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체험 중간에 이뤄진 공연에서 김종민 주인도네시아 총영사, 배도운 이사장, 박재한 한인회장이 축사로 코리안데이의 고마움을 전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관객들은 직스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는 아롬바의 가락에 맞춰 홀로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1,2

학년 학생들의 앙증맞은 공연과 난타, 태권도, 우리춤, 상모판굿, 태권도 공연이 이어져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전시 마당에는 한국의 전통 박물관을 통째로 기증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 회장의 예술품이 전시되었으며, 한국의 문화재 및 사계절 사진과 식물들이 전시 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배도운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들께 감사하며, 이번 행사로 인해 한국의 위상과 직스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치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코리안데이와 함께 이뤄진 JIKS Open House에 참석한 학부모는 내실있는 한국 교육과정에 놀랐다면, 내년엔 입학하는 아이를 직스에 꼭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직스 코리안데이와 인도네시아 데이 행사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데이로 화려하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동포사회부>





## 세라젬 척추온열마사지로 달라지는 내일!

### 세계에서 매일 250만여 명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라젬은 세계 70여 개국, 2,500여 개의 대리점을 운영중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매일 250만여 명의 고객분들께서 세라젬 척추온열의료기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과 함께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 20년 역사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
- 인체의 중심 척추관리를 위한 척추온열의료기기 개발(1998년)
- 체험마케팅을 통한 세계 70여개국 네트워크 구축
- 척추온열의료기기 글로벌 누적판매 250만여대 업계 1위

**상담문의** 0811 9593 111



# 삼포르나 아카데미 환영합니다

## 인도네시아 최고의 명문그룹 학교재단 유치원 초중고 시설 및 교육은 최고를 자랑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도자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교육 시스템  
이미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 한국학생들이 재학중



### Jakarta Campus



☎ 0813 3000 3002  
📧 sampoerna.academy.jakarta

### Medan Campus



☎ 0811 6363 331  
📧 sampoerna.academy.medan

### BSD Campus



☎ 0811 9530 032  
📧 sampoerna.academy.bsd

### Sentul Campus



☎ 0811 9530 031  
📧 sampoerna.academy.sentul

### Surabaya Campus



☎ 0858 5917 6832  
📧 sampoerna.academy.sby



Cambridge International School



대학의 경우 영국 미국 교환학생제도 가능  
삼포르나 그룹 취업 우선화 고려

<입학문의> "상시입학가능" 한국인 상담환영

TEL : 021)5022- 2234

e-mail : info@sampoernaacademy.sch.id

 [www.sampoernauniversity.ac.id](http://www.sampoernauniversity.ac.id)



## 한일 무역전쟁 긴장, 인도네시아 경제가 위협하다

## 유니클로, 세아 거래 관계 ‘복원’ 정상 거래 합의한 듯



<일본무역보복에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은 큰 이슈로 다루고 있다. Katadata지는 ‘일본-남한 무역 전쟁으로 인도네시아에게 더 위험하다’고 보도했으며, 대부분 주요 언론도 일본과 한국의 무역 긴장은 인도네시아의 투자와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 긴장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도네시아경제가 위협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의 피트라 파이살 (Fithra Faisal) 경제학자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한일간의 무역 관계긴장의 영향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보다 더 심하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트라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일본에 더 의존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katadata.co.id가 7월 8일 보도했다.

피트라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와는 더 가깝기 때문에 양국의 무역 긴장은 인도네시아의 투자와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한-일 및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기 때문에 한일간의 무역관계 긴장이 오래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경제성장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1/4 분기에 11억 3,000만 달러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 투자 국가 중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한국은 2억 6,950만 달러의 투자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 5월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가스 분야를 제외

한 수출에서 56억7,000만 달러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27억 3,000만 달러의 수출 가치로 7위에 위치하고 있다.

피트라는 한일간의 무역관계 긴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문제와는 달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일본은 역사적 갈등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무역관계 긴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보다는 더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 전통적 수출 시장을 강화하는 것과 경상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한 인도네시아 언론의 반응

- **Republika.co.id** - 18일자 보도에서 ‘아시아 무역 전쟁, 한국 금리 인하’ 제호로 한국중앙은행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긴축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중요한 소재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했다. 일본 수출에 대한 제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은 6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은 세계 반도체 산업 경기 순환과 세계 무역 분쟁의 감소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 **Wartaekonomi** - 18일 ‘이

것이 일본이 한국과 충돌한 이유’라고 전하면서 “한일 양자의 뿌리는 미-중 경제 경쟁이나 안보 문제보다 복잡하다. 이 두 나라는 20세기의 역사가 지니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10-1945년의 전쟁과 전시 억압으로 한국인 위안부 문제와 일본 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지불 문제 등 일본의 점령과 관련된 일한을 품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의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Medcom** - 16일 “일본-한국 무역 전쟁, 삼성 칩 생산 둔화”라는 제호 기사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칩 제조업체들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다. 공장 가동을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얻으려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TEMPO** - 14일 ‘한국과 일본

의 무역 전쟁에 관한 4가지 사항’이라는 제호에서 한일무역 전쟁은 식민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파장으로 4가지 분석 기사를 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www.rlcindonesia.com

#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보세창고 20년의 역사, **RLC**가 한발 더 나아갑니다

### 무역 통합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창고 20년 역사의 RLC가 그 동안 축적된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업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보세창고 업무는 물론 해외 및 국내외 물류, 산업 원부자재 구매 및 판매대행, 통관 등 각종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보세창고

무역대행

구매

통관·배송

재고관리

지사업무

산업 원부자재 구매 대행

**ZIMMOAH**

담당 : 부장 최기락  
MP : +(62) 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



# 인도네시아 주간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신한은행인도네시아 제공



## 20% 법인세가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법인세를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재무부의 세금 총괄인 Robert Parkpaha은 세율을 인하하려면 2007년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의회 상정 및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올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Robert는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세정센터의 대표인 Yustinus Prastowo는 정부가 의회를 통해 세율 인하 방안을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율 인하 안에 대한 공공 자문을 수행해야만 하며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 정부, 보험업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의 ‘기득권 인정’ 을 제안

재무부는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 회사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거나 정부령 제 2018-14호의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외국인 자본 한도 80%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령(PP)를 살짝 손볼 예정입니다.”라고 Sri Mulyani 재무장관은 지난 화요일(2일) 있었던 11차 의회 청문회의 검토회의 자리에서 말하였다. 이미 보험회사에 대해서 80% 이상의 외국인 참여자들은 기득권을 인정받거나 정부령의 예외를 적용 받을 것이라고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해당 정부령은 보험회사에 대해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소유를 납입 자본금의 80%로 제한해두고 있다.

## 인도네시아, 성장을 위해 해양도 바라봐야

“인도네시아의 신뢰감 있는 경제 운영을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World Bank의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담당자인 Rodrigo A Chaves가 말하였다.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 탠트럼 때보다도 더 큰 규모로 있었던 2018년에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본 이탈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는 굳건하였으며, 2018년 9월 기준으로 빈곤률을 97%라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현 레벨에서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인도네시아는 구조개혁을 더 지속해 나가고 굳건한 재정, 통화정책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자카르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채권 발행 계획

자카르타 행정부가 정부가 승인한 571조 루피아(\$403.5억)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인 Anies Baswedan은 자카르타 행정부가 지방채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지방채 발행은 연구 중입니다.”라고 지난 화요일(2일) Anies 주지사는 kontan.co.id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는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다

571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개발하자는 계획의 결정은 지난 3월 제한된 내각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여기에 Anies 주지사도 참석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부분이 대중 교통과 관련한 프로젝트로 이뤄진 해당 프로젝트가 다음 10년 내에 완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Anies 주지사는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장기간 계류되어온 상수도망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도물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의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 새로운 인도네시아-일본 협약이 2019년 말에 완료될 예정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는 현재 양국간의 새로운 경제 협력 협정을 위해서 작업 중이며 올해 말까지 협약을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일반 리뷰(GR-IJEP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는 지난주 G20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조코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회담에서 확인되었다. “양국 정상들이 GR-IJEPA를 완료하는 것이 양국간 중요한 무역관계에서 시급성 있는 이슈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양국 정상회담에 동반한 무역부 장관 Engartiasto Lukita가 지난 수요일(7/3) 얘기하였다.

회담 동안 양국 정상은 대표단에게 의정서 수정안의 완성을 조속히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음. GR-IJEPA 협상의 지속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조코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한 올해 RCEP 협정을 완료하는 것에 협력하는 의사를 교환하였다.

RCEP는 10개 ASEAN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기에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있어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고 전세계 무역량의 25%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무역 협정이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6월 말에 만나서 GR-IJEPA 협정의 완성을 위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교환하였다고 Enggartiasto 장관은 말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어 GR-IJEPA를 종결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마찰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GR-IJEPA협정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6월17일부터 7월18일까지 루피아화 환율 그래프. 최근 루피아화가 강세로 전환된 가운데 7월18일에는 달러당 13,950루피아에 거래되고 있다>

데,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내용, 고용, 투자 및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 지적재산권 및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장관은 덧붙였다.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권한을 여는 것과 별개로 IJEPA는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의 방법을 찾는 것도 다룰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 재무장관, 2018년 정부 예산 ‘안전’ 했다고 평가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지난 화요일(7/2) 2018년 국가 정부 예산이 2694조 루피아 적자를 기록하여 GDP의 1.81%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정부의 예상 목표인 GDP대비 3% 적자를 크게 하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적자는 또한 연간 재정 적자 목표에서 정하였던 2.19%보다도 더 낮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였음. “2018년 재정 적자는 안전한 수준입니다.”라고 Sri Mulyani장관은 2018년 재정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회 승인을 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재정 적자는 국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뤄졌으며(302.7조 루피아), 외국인들을 통한 자본 조달은 3.2조 루피아 수준이었다. 2018년 재정은 이에 따라 36.2조 루피아의 비사용 자금을 이연 하였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교통에서의 전자거래 최적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 분야와 사회 보조 분야에서의 전자 거래의 사용을 최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가 창조 및 전자거래의 증진을 위한 12개 시너지 프로그램에 동의한 이후에, 중앙은행은 이들 2개 분야에 대해서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라고 중앙은행의 남부 솔라웨시 지급결제 시스템 부문에서 지방 지급 결제 전자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인 Maudy Halim이 지난 월요일(7/8) Makassar에 발표하였다.

Halim은 전자 시스템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와 정부의 재정 투명성 강화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쉽게 해결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전자 또는 비 화폐 거래의 사용의 확대가 정부의 재정적인 투명성 정도를 높여주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정부패의 수준을 줄여낼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높은 현금 거래들은 낮은 재무적 투명성으로 인해서 부패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전자 거래가 2019년에 몇몇 준비된 전략의 적용을 통해서 인구의 75%까지 금융 부문의 침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전자 거래가 더욱 증진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교통 부문에 덧붙여, 사회보조 부문도 전자 거래를 사용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데, 2016년에 비 화폐적 사회 보조 프로그램이 Family Hope Program(PKH) 및 비현금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BPNT) 등을 통해서 집행된 것들을 사례로 들었다.

## 인도네시아 일자리와 성장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

인도네시아는 지난 화요일(7/9)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R&D 투자를 많이 하여 고용 창출을 하는 기업들을 위한 법인세 우대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5.3%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와중에 투자와 성장을 가속화시키고자 진행중인 여러 세금 조치들의 일환임.

조코위 대통령은 4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인적 자본 개발을 그의 주요 우선순위에 두었다. 지난 화요일 새로 발표된 법령에 따르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할 경우 그 기업의 법인세에서 60%를 감면해주며, 특정 기술 연수를 시행할 경우 해당 연수에 사용된 비용의 2배 만큼을 감면해준다고 내각 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기업들은 신기술의 사

용과 창의를 증진하는 인센티브, 그리고 연구개발비용의 3배 정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수퍼 세금 감면”이라고 불리는 이번 혜택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해당 규정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장인 Hariyadi Sukamdani는 이번 세제 혜택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세수 확보가 늦어지는 것을 염려하였다.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이에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대비 2.4% 증가한 496.7조 루피아(351.8억달러) 수준이었었는데, 2019년 연간 세수 증가 목표 19%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장관들을 질책

조코위 대통령은 공기업부 장관 Rini Soemarno와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 Ignasius Jonan에게 올해 첫 5개월 동안의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질책하였다. “1~5월의 무역수지 적자는 21.4억 달러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주로 어디서 나왔는지 좀 봅시다. 높은 원유 및 가스 수입 때문입니다. 조심하세요, 에너지광물부 장관과 공기업부 장관. 이게 다 당신네들 부서 관리 범위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7/8) 내각회의에서 말하였다.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김재훈 세무 컨설팅

## 고급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PPN BM) 및 소득세(PPh22)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I. 고급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PPn BM)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6/PMK.010/2019) 종전과 세율은 20%로 동일하지만 특소세 해당 대상은 종전에는 총별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는(Non strata title) 주택 및 타운하우스는 2백억 루피아 이상, 총별 소유권이 구분되는(Strata title) 아파트·콘도미니엄·타운하우스는 1백억 루피아 이상 적용되는 규정에서 Non strata title 및 strata title 구분없이 고급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및 이와 같은 고급 주거건물로서 판매 가격 3백억 루피아 이상으로 변경됨.

2019년 6월 11일 발효

II. 수입물품 및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소득세 원천징수 (PPh22)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92/PMK.03/2019)

### 1조

(2항) 고급사치품이란 a. 개인 비행기와 개인 헬리콥터 b. 크루즈, 요트 및 이와 같은 것 c. 주택 및 토지로서 판매·교환 가격이 3백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축면적이 400㎡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수출은 전년대비 8.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9.2% 감소하였다. 대통령은 모든 장관들에게 인도네시아가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볼 것을 주문하면서 섬유나 가구업종의 경우에 이러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크던 수출업자들에게 특별혜택들을 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장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 Jonan장관, 조코위 대통령의 원유/가스 수입 증가 비판에 대해 해명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인 Ignasius Jonan은 원유 및 가스 수입이 증가한 것은 소비가 급증한 반면 국내 생산은 점진적으로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2018년의 무역수지 적자와 2019년 1~5월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원유 및 가스 수입 증가 때문이라는 조코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의 비판은 Jonan장관과 공기업부 Rini Soemarno 장관이 참석한 월요일(7/8) 내각회의에서 있었으며, 대통령은 2019년 첫 5달 동안 무역수지 적자가 2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은 원유 가스 수입의 증가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Jonan 장관은 국민들의 연료 소비 증가 원인은 전국에 걸쳐 도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며, 원유 및 가스 생산은 단기간 내에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는 대규모 탐사가 최근 몇 년에서야 겨우 시작되었으며 국영 석유회사인 Pertamina를 포함하여 대형 석유 회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Jonan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은 일 77.5만 배럴인 반면 원유 소비는 일 130만 배럴에 달한다고 말하였다. 가스 생산은 일 120만 배럴 상당의 규모이며 65%가 국내 소비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소비자들 향후 6개월간 경제에 대해 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최신 소비자 신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수 소비자들은 현재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6개월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세무 컨설팅

## 고급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PPN BM) 및 소득세(PPh22)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상인 것 d. 아파트, 콘도미니엄 및 이와 같은 것으로써 판매·교환 가격이 3백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축면적이 150㎡ 이상인 것 e. Sedan, Jeep, Sport Utility Vehicle(SUV), Multi-Purpose Vehicle(MPV) 형태의 10인 이하 4륜 자동차로서 판매 가격이 20억 루피아 이상 또는 3,000 CC 이상인 것 f. 이륜 및 삼륜 자동차로서 판매 가격이 3억 루피아 이상 또는 250 CC 이상인 것 (3항) 소득세법 제22조 (1). C.의 원천징수자인 고급사치품으로 분류된 재화를 판매하는 법인 납세자이다.

### 2조

(1항) 상기1조.의 원천징수자는 고급사치품을 판매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항) 원천징수 소득세는 - 상기 1조 2항 c 및 d 는 부가가치세(PPN)와 특별소비세(PPhBM)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 가격의 1% - 상기 1조 2항 a, b, e 및 f : 부가가치세(PPN)와 특별소비세(PPhBM)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 가격의 5% (3항) 상기(2항)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고급사치품을 구매한 납세자의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액으로 계산한다.

2019년 6월 19일 발효 <끝>



# 종근당, 인도네시아 항암제 공장 준공 글로벌 진출 가속화

- ▶ 인도네시아 GMP 및 할랄 인증 획득...올해 하반기 상업 생산 시작
- ▶ 인도네시아 교두보로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시장 진출 목표

종근당(대표 김영주)이 인도네시아에 항암제 공장을 준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종근당은 9일 인도네시아 치카랑에서 합작법인 'CKD-OTTO'사의 항암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닐라 파리드 모에로에크(Nila Farid Moeloek)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페니 루키토(Penny Lukito) 식약처장,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과 김영주 사장, 인도네시아 합작사인 멘사그룹 지미 수다르타(Jimmy Sudharta) 회장 및 인도네시아 제약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종근당은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오토사와 합작법인 CKD-OTTO를 설립했다. 2016년 7월 자카르타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한 치카랑 산업단지(Cikarang Industrial Estate)에 항암제 생산 공장을 착공하여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획득했다. 올해 2월에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인 울레마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로부터 할랄(HALAL)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 최초 할랄 인증 항암제 공장 준공했다.

CKD-OTTO 항암제 공장은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연면적 12,588㎡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됐다. EU-GMP 수준의 시설을 갖췄으며 연간 약 16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다. 종근당의 제품 생산기술과 운영시스템을 이전하여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항암제 젠시타빈과 파클리탁셀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주요 항암제의 품목허가를 추가로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종근당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것은



<지난 7월 9일 'CKD-OTTO'사의 항암제 공장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CKD-OTTO 백인현 대표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닐라 파리드 모에로에크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멘사그룹 지미 수다르타 회장,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현지 의약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눈 여겨 보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7천만명의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제약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8조원에서 2023년 약 13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 유통, 판매하려면 생산설비를 갖춘 현지회사와 협력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당 의약품의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

종근당은 자국에 생산설비를 갖춰야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의 현지화 전략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의 항암제 시장은 약 2,300억원 규모로 연평균 38%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항암제 주사제 시설은 공정난이도가 높아 현지 생산업체도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항암제 공장을 준공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항암제 시장에서 1,3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

종근당의 연구개발 기술로 개발한 항암제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종근당은 할랄 인증까지 획득한 항암제 공장을 향후 20억 인구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을 전략이다. 향후에는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시장규모와 성장성이 큰 기회 시장”이라며 “항암제 공장이 상업생산을 시작하는 올해를 종근당의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아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닐라 파리드 모에로에크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CKD-OTTO 항암제 공장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고품질의 의약품이 보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CKD-OTTO 사가 인도네시아 제약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의약품 수출을 통한 인도네시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업인을 위한 THE 101 Jakarta Sedayu Darmawangsa 호텔...영화상영



지난 7월 5일, 40명의 기업인들은 라이브 음악 반주에 맞춰 Jakarta Sedayu Darmawangsa 101호텔에 위치한 Tosca 야의 라운지에서 초대되었다. 기업 특별 투숙객은 독서실과 같은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서 초청 손님들은 핫도그, 햄버거, 피자 등 간식을 제공받았다. THE 101 Jakarta Sedayu Darmawangsa 호텔 회의실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형적

인 영화관으로 변모시켰다. 이날 게스트들은 코미디 단편 영화를 보았다.

101 Sedayu Darmawangsa Jakarta의 Executive Assistant Manager인 Eva Rosdiana는 "Holiday on Cruise 프로그램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장했으며 가장 많이 예약한 회사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이다. 크루즈 선박에서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OECD-인도네시아와 공동건설팅사업 보고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건설팅사업' 최종보고회를 8일 자카르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KSP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수평과제였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주제별 연구결과와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보건부, 재무부, 사회보장위원회, 건보공단,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의 보건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정성 확보 수단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을 소개했



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의 말리키 국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현재의 한국 건강보험을 있게 한 요소"라며 "한국

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잘 전수돼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T. HD FORKLIFT INDONESIA**  
Hyundai Official Agent

**HYUNDAI**  
MATERIAL HANDLING  
www.hyundai-m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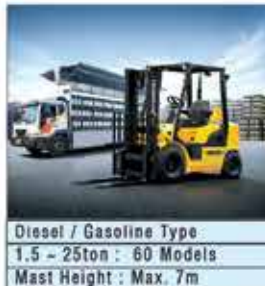
**25-30  
35B-7A**



## 현대 전동지게차 경제형 모델 출시 인도네시아 최초 리튬배터리 판매시작

2톤, 2.5톤, 3톤, 3.5톤 Counter Balance (4휠 타입)

- ▶ Economic Price : 동급 경쟁사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
- ▶ High Quality : 현대 기술력의 고품질
- ▶ Baru Service : 검증된 무상점검 순회서비스 since 2013
- ▶ 보증기간외 현대지게차 영구 사용시까지 매2개월 마다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PT. HD FORKLIFT INDONESIA**  
Marketing PIC : Ms. Ayu (0812 9597 2720)  
After Service PIC : Ms. Siti (0813-3307-7913)  
Korean Desk PIC : Mr. Park (0821-2534-3214)

Korea Style Service  
프로그램



매월 1회 무상정기점검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부품공급 48시간 이내 완료

무상보증기간 1년 또는 1,500시간  
납기지연, 부품지연시 무상렌탈  
구형지게차 매입서비스

Jl. Raya Kelapa Hibrida Tipe Olive A, Blok GOS No. F 06 Rukan Grand Orchard-Kelapa Gading. ☎ 021-2961-6497, (Mail) : hyundaibagus@gmail.com



##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글. 박수민/BINUS 11학년

최근 상산고를 시작으로 경희고, 이대부고 등 자사고들이 연이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았다. 전국 24개의 자사고 중 총 11곳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되었고, 이는 자사고 존폐 여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자아냈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약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처음 도입이다. 그리고 자사고는 교육과정, 수업 일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와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추진 목적과는 다르게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10여년간 자사고와 외고 등은 우선 선발권을 통해 전국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왔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이

높은 자사고 외고 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가 수직서열화되었다. 자사고 반대 측은 이와 같은 고교서열화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특정학교에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이들은 자사고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목적은 특정학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었겠지만 교육의 장이 아니라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자사고는 변화를 맞아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반면, 자사고를 찬성하는 측은 자사고 폐지는 교육 선택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요리를 잘하는 학생은 조리고로 진학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일반고등학교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사고로 진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자사고 찬성 측은 자



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고 이를 불평등이라 규정한다면, 예고나 과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환경 또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의 중심인 학생 중 하나로서 나는 두 주장에 모두 공감을 하였다. 그러나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과연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가깝지만 동떨어진 학생으로서 교육 정책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는 정치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를 할

때, 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많은 언론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자사고 존폐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자사고 죽이기’와 같이 감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현열을 조장하고, 독자들에게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유도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미래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사사로운 정치적 감정에 얽매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사고 폐지에 문제점이 있다면 일방적

## 교육의 배경

글.김현아/ SIS KG 10학년

‘학교’라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가 존재해온 세월은 약 20만 년이지만, 학교나 정식 교육 체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몇 천 년 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정식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도 교육은 항상 존재해왔다. 수렵 채집 사회의 아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탐험하고 그 안에서 놀면서 지식을 터득했다. 이들에게 놀이와 탐험은 자연스러운 교육의 방식이었다.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사회가 형성되자, 놀이와 탐험보다는 꾸준한 노동이 중시되었다. 대부분

의 노동은 아이들이 해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이었기에, 많은 아이들이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고 많은 아이들이 적은 임금, 힘든 노동, 그리고 어른들의 구타에 시달리다 죽었다. 교육은 그저 아이들을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는 좋은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때쯤, 사회 상류층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가 형성되었다. 아마도 최초의 학교는 후에 메소포타미아가 된 이집트의 수메르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 학교는 왕족, 그리고 부잣집이나 전문가들의 아들들이 다녔다고 한

다. 나머지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거나 견습생으로 일을 배웠고, 여자아이들은 집안일을 배웠다고 한다. 점차적으로 사회 하류층의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문제는, 교육이 아이들의 놀이와 탐험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름만 다를 뿐, 또다른 식의 아동 노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장의 구타 혹은 가혹행위가 교육 현장인 학교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최근에 와서 학교 체벌은 불법

이 되어 거의 없어졌지만, 공부가 아이들의 또다른 노동이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이만으로는 아이들이 세상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는 당연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부와 놀이는 이미 완전히 격리되었다.

아이들이 외부 영향 없이도 공부를 즐기고 배움을 중시하려면, 공부는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금의 교육 체계를 재해석하고,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 바비굴링 (Babi Guling)

글.이하얀/GMIS 11학년



발리는 인도네시아영토이면서 관광으로 잘 알려진 섬이다. 발리는 다양한 명소, 종교, 전통, 음식 등으로 유명하다. 그중 발리의 대표적 음식은 바비굴링이다. ‘바비’는 돼지라는 뜻이고 ‘굴링’은 돌린다 라는 뜻이다. 발리의 전통 음식 바비굴링은 새끼 돼지 배 안에 향신료와 각종 야채를 넣어 통째로 굽는 요리이다. 돼지를 불 위에 올려 굽는 것은 껍질을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만드는 비법이다.

발리에서는 직화구이를 할 때 야자 열매 말린 껍데기를 사용한 다. 이것은 연기와 함께 훈연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바비굴링 역시 야자 열매 껍데기로 몇시간에 걸친 훈연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처음 바비굴링은 전통적인 의식과 종교의식을 위한 의식 행사에서 사용됐지만, 현재 바비굴링은 레스토랑 및 일부 호텔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발리 사람들에게 바비굴링은 축제의 한 축이자 삶의 연회 같은 것이다.

발리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바비굴링 또한 한국의 각종 프로그램에 언급되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호불호가 극히 나뉘는 음식으로 보인다.

### 단, 한권이라도 3일내에 보내드립니다

- 각종 도서 출판물 수입 공급 안내
- 주간지 월간지
- 각종 단행본 도서물
- 각종 인쇄 출판물
- 교재 및 학습지

정식통관 세금 100% 지불하면 더 싸고 빠릅니다.

출판물 신문 특송업체  
TIGA BINTANG JAYA  
021-4586-9198, 08121004999

## 당뇨와 관한 5가지

글. 김현아/ SIS KG 10학년



매년 인도네시아의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특별한주의가 필요한 질병 중 하나다. 2017년 국제당뇨병협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 수가 6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1천20만명의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발병률은 6.2 %로, 17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을 앓고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당뇨병협회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노인뿐만 아니라 35-39세의 20명 중 1명, 40-44세의 12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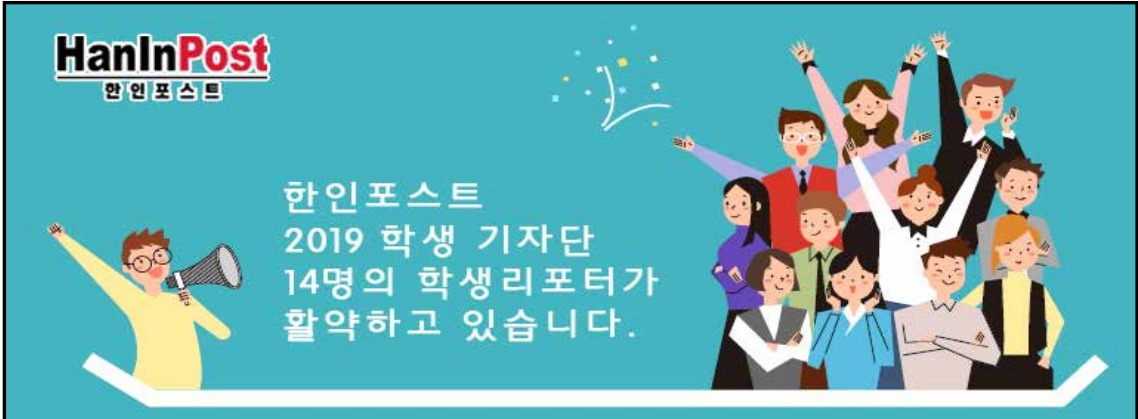
1. 전세계적으로 약 4억만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150만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약 220만명이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만큼, 당뇨병은 세계 주요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2. 당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제 1형 당뇨병, 그리고 제 2형 당뇨병. 제 1형 당뇨병은 몸이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병이다. 제2형 당뇨병은 몸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않거나, 인슐린을 쓰지 못해서 생겨난다(인슐린 내성). 실제로 2형 당뇨병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많이 발견된다. 이것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신체 활동의 저하, 비만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3. 제3형 당뇨병이라 불리는 것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뇌가 인슐린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제3형 당뇨병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

진 않았다. 4.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으로, 몸의 세포들이 혈당을 사용하 에너지 를 만들거나, 혈당을 변형시켜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몸의 혈당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한다.

5. 당뇨병은 완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찍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당뇨병 환자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적절한 운동, 식습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 모두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





##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NUSANTARA NEWS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대기오염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선 인도네시아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Jawa) 섬 전체와 발리, 그리고 NTB와 NTT 지방이 최악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질기상청은 지난 2015년 당시 가뭄만은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좀더 빨리 가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비가 내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난 주 한때 서부자바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공강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싶어도 구름이 조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

럼 구름도 한 점 없고 바람만 부니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집 주변 쓰레기를 태우기 바쁘고 농민들은 벼짚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극심한 가뭄이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바깥 공기는 점점 더 나빠져 아예 뿌연 하늘만 보이고 있습니다.

## 내각인선에 고민

조코위-마루프(Maruf)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통령은 어떻게 하면 뿌라보워(PRBW) 축을 지지하는 40% 이상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내각에 누굴 임명하느냐 하는 것과 어느 당에 몇 석의 장관 자리를 배정하느

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것입니다. 장관자리 배정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여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차기 내각이나 각부 장관장 자리를 놓고 논공행상을 하다 보면 한차례 큰 정치적 소요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정치적 소요를 막기 위해 정치권 밖에서 다른 이슈를 내걸고 있습니

## 솔라웨시 비퐁(Bitung) 경제특수공단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5일 북솔라웨시 비퐁(Bitung) 특수경제 공단을 끼고 있는 항만 건설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비퐁(Bitung) 특수경제 공단이 잘 돌아가게 되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

니다. 비퐁(Bitung)은 수심이 깊어 국제항으로서의 비전이 큰 항구입니다만 큰 배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고등어류 통조림 공장이 많은 통조림 수출항이라고 할 수 있겠

## 1차산업 수출기업 금융관리 단속

재무부 장관은 수출을 하고도 외국환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수출 기업들은 일정한 벌과금을 매길 것이라고 합니다. 석탄과 같은 광물수출업체나 목재 혹은 수산물 수출업체가 수출 대금

달러를 외국 어디에 두고 국내로는 반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악의적 기업에게 수출금액 0.5%를 과징하겠다고 합니다. 또 정상적인 수출 프로세스를

습니다. 어쨌든 비퐁(Bitung)과 마나도(Manado) 간에는 고속도로가 이미 놓여져 있고 마나도(Manado) 앞바다에는 부나켄(Bunaken)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참 많습니다.

거치지 않은 기업에게도 0.25%를 적용하고 Escro Account를 열지 않았거나 Escro 계좌 중국내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해외 계좌에 두고 있는 기업도 관세법 위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찌레본(Cirebon) 신공단 조성

요즘 부쩍 뜨기 시작하는 찌레본(Cirebon)은 주변의 마잘렝가(Majalengka)와 인드라마유(Indramayu) 등과 함께 신공단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찌레본 석탄발전소 뇌물 사건으로 인해 말이 많습니다.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사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찌레본(Cirebon) 전 군수는 이미 KPK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뇌물을 준 한국 건설사에

대하여는 아직 어떤 죄목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나 군 당국은 한국 건설사에 대해 건설은 그대로 계속하되 뭇가는 처벌을 하고 환경 평가라든지 민원을 보완할 점이나 아니면 그걸 보완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찌레본(Cirebon) 군은 신임군수의 취임을 기회로 새로운 찌레

## 르바나(Rebana) 경제특구 삼각공단 찌레본(Cirebon), 빠뎀반(Patimban) 항구, 끄르따자띠(Kertajati) 국제공항

리드완 까밀(Ridwan Kamil) 서부자바 주지사와 우마르 하디(Umar Hadi)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는 서부자바에 투자하려고 하는 한국계 회사들에게 르바나(Rebana) 삼각공단, 즉 찌레본(Cirebon), 빠뎀반(Patimban) 항구, 끄르따자띠(Kertajati) 국제공항을 잇는 삼각공단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찌레본(Cirebon)과 수방(Subang), 그리고 마잘렝가

(Majalengka) 시를 연결하는 삼각형 도시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능하면 한국계 기업을 주로 초청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봉제공장들은 의미가 없고 Lotte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적합할 것 같다는 것이죠. 연산 30만 대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오면 벤티(Bendor)만 해도 30개 회사가 따라와야 하는 부수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자카르타 자동차 흠족제 시간 연장 검토

자카르타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흠족제 시간을 지난 아시안 게임 패처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저녁엔 4시부터 밤 8시까지 연장할 경우 무슨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지 각 분야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이나 자동차 등 일반 시민들의 불편까지 조사를 하고 있

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흠족제 시행 시간을 좀더 늘리게 되면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함이 그만큼 더 증가하겠지만 그대신 지금과 같은 교통혼잡은 좀더 줄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무조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화물 트럭이나 자동차를

## 보고르(Bgr) 시 외곽 고속도로 마비

지난 주 수요일, 보고르(Bgr) 시 외곽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보고르(Bogor) 일대의 교통이 거의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센툴 슬라탄(Sentul Sel)에서 나가 보고르(Bgr)와 빠룽(Parung) 쪽으로 가는 JORR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교각 시멘트 상판을 올리는 과정에



글. 한상재/칼럼리스트

본(Cirebon)의 이미지를 전통 중국식 두부산업에서 찾고 있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인데 앞으로 3개월 이내 디자인이 끝나면 그때 가서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회사 외에도 일본계 회사들이 투자문의의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찌까랑(Cikarang)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계 회사들이 아직 디자인 중인 르바나(Rebana) 삼각공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모두 1,800개 일본계 회사가 있는데 그 중 700개 회사가 서부자바 주에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진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카르타 시 당국은 시간을 좀 더 연장할 것 같습니다. 흠족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명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카르타 시 당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흠족제로 결정하고 지난 주말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 그만 그 상황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아직까지도 보고르(Bgr) 시 전체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자카르타 대구사무소 박성호 소장

인니, 中시장 대체할 잠재력 크다… 대비책 세워야

인구 세계4위 · 1인당 국민소득 높아  
창업생태계 훌륭하게 구축된 국가  
화장품 · 식품 · 핀테크 업종 적합해  
인니 수처리시장 블루오션 가능성  
대구 우수 물기업 진출 중요 과제

대구시는 지난달 말 자카르타에 대구사무소를 개설했다. 초대 대구사무소 소장으로 중책을 맡은 박성호 소장은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도네시아에 흥미를 갖게 돼 스스로 자원해 현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대로 대구의 날개를 더욱 넓히고 있는 박성호 소장을 만나봤다.

##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1991년 8월부터 대구시 북구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2009년 북구보건소 근무 당시 경북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UGM 학생 Rio(리오)를 만나면서 관심을 갖게됐다. 우게엠, Universitas Gadjah Mada(UGM) 가자마다 대학교)는 족자카르타주에 있는 인도네시아 제2의 대학으로 조코위도 현 대통령을 배출한 우수한 대학교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인구 세계 4위, 많은 젊은 인구층, 국토면적, 풍부한 자원 보유 등)에 끌려 2010년 리오 학생과 함께 인

도네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일단 어학연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1년 인도네시아 대학교(인도네시아 제1 대학)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국외유학으로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매년 2회 이상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다.

## △자카르타 현지 생활의 장점과 단점은.

-늘 웃음이 있는 얼굴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참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느긋하게 일정을 잡고, 시간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한국과 다르다. 교통비, 식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도네시아에서 물가가 비싼 자카르타도 대구 물가대비 60%정도 수준이다. 단점은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나 7~10km 거리에 40분~1시간 이상이 걸린다. 한국 같이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 항상 팩킹이 된 물을 구입해 음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한국은 야채를 물로 바로 세척해 먹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배탈이 크게 날 수 있다.

## △인도네시아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는 최근 신평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신평방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이 경제성장 속도가 높아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교류를 다변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 명에 경제규모(GDP)가 아세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중심 국가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 이상 높고 인구도 2.5배나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이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해외사무소의 역할은 지역의 수출지원,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국제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가 지정한 대구경북 방문의 해라서 인도네시아에 대구경북을 홍보하는 일이 당면과제다. 인도네시아의 수처리시장이 향후 블루오션이 될 것이므로, 대구의 우수한 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구로서 중요한 일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창업생태계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다. 인도네시아에 현재 적합한 업종은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스마트산업, 핀테크, 관광 등이다. 자카르타와 위성도시간 경량전철(LRT)을 건설하고 있어 조위 2기 정부가 마무리되는 2024년말이면 대대적인 물류, 교통의 혁신이 예상된다. 지역간 이동이 원활해지면 한국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 진출의 기회를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신문>

## 프랜차이즈協 "한국 기업 印진출 도와요"

박람회 · 바이어 매칭 등 적극 지원



<아냥 수칸다르(왼쪽)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협회장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이사인 이종근 엘스엘에프앤비 부사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인도네시아프랜차이즈협회(Asosiasi Franchise Indonesia(AF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협회는 80여개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

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협회와 함께 WFC(세계프랜차이즈협회) 및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이다. 협회는 향후 인도네시아협회와 양국 가맹사업 관련 법규 및 정책 정보 교류, 양국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교류, 글로벌 스탠더드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도모, 박람회·바이어 매칭·창업설명회 등 양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상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광고 및 구독 문의

**HanInPost**  
한인포스트

PT.Hannahpress Indonesia  
Tel: 021-4586-9199, 4586-9057  
Fax: 021-4586-9198, HP.0812-1004-999  
e-Mail: haninpost@gmail.com  
www.haninpost.com



[신간도서]

## 자바의 꿈

이태복 지음

130\*210 | 130쪽 | 9,000원 | 2019년 7월 18일 펴냄  
시산맥사 | ISBN 979-11-6243-067-5 03810


[추천글]

이태복 시인은 “정들어 고향이 된 자바 땅에”(「적도 나무꾼 일기」) 동지를 틀고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고 마을의 전설을 듣는다. 자바 아이들의 고무줄놀이를 구경하고 가물란 음악을 듣고 오래 익은 술 같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

일제가 식민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짓밟은 역사를 암바라와 위안소에서 확인하며 일찍이 박인환 시인이 조선과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박인환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우자고 촉구한 목소리도 새긴다.

결국 이태복 시인은 자연에 겸손하고 사람들과 나눌 줄 알고 역사의식을 가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돈의 종”(「살라피가의 가을」)에서 벗어나 “달려도 달려도 끝없는/누런 들녘”(「1월 자바 들녘」)에서 민들레 같은 농부로 피었다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한없이 행복하다. “호야불로 작은 등대를 세우고/희망의 심지를 뿜”(「살라피가의 호야불」)우는 하루하루가 자바 사람들의 미소처럼 밝은 것이다.

-맹문제(시인, 안양대 교수)






사산 이태복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자바의 꿈 출판기념회」 및 「대한독립열사와 위안부 사진전」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자바의 꿈 출판기념회 & 대한독립열사와 위안부 사진전**

■ 일시 : 2019년 8월 13일~8월 15일 ■ 오프닝: 8월13일(화) 오후5시  
■ 장소 : 한인 문화회관 / 코리아센터내 (구)대사관 영사동 2층  
■ 문의 : 02-62-4113, 02-62-11791



이태복의 시집<자바의 꿈>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민속 등 실화를 시 속에 완벽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순박하고 밝은, 아름다운 시인의 풍정이 자아롭게 발라놓는 것이 만개미듯 시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이번 시집에서 조국의 역사적 실존을 시에 수용하고 있는 정도 및 시집과 다른 큰 의미를 갖는다. 초선황년의 정통을 달리고, 소녀가 위안부로 끌려가 수용된 흔적이 있는 옛 일터와 실을 통해 시인은 조국의 비극적 역사를 노래한다. 어쩌면 시는 개인이나 역사의 실존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모른다.

-공정길 시인의 해설 중에서-

[저자]

-1960년 경북 예천 출생  
-2015년 계간·문장·시부문 신인상 수상  
-한인포스트 라디오 방송 진행  
-2015년 ‘붓과 렌즈로 보는 인도네시아’ 서양화 개인전(한국문

화원)

-여수국제무역박람회 홍보위원  
-월드옥타 상임이사  
-2017년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가작) 수상  
-현)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부회장, 사산 자바문화연구원장  
시집 ·민들레 적도·(2016년)

금주의詩

## 와루나무2

세월이 지나간 손가락 마디 마디  
류마티스가 노인의 취침을  
어렵게 하듯

오랫동안이나 쌓인 시간의 무게로  
가눌 수 없던 너의 등줄기  
꺾이고 굴곡지고 파여져  
아름이 딱지처럼 붙어 있다

가진 수명 다 살면 뭐하게  
와루나무야!  
모진 질고(疾苦)의 삶  
여태 이어 오느냐?

스치는 해풍만이  
너의 등  
너의 거친 손마디  
남몰래 어루만져 주는구나



김재구/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 〈시작 노트〉

얼마전 흙복의 생기기 해변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 근처 해변을 전문 음식점에 들렀을 때, 그 뒤 편 해변으로 난 횡마당에서, 나는 참 앙쓰러운 나무를 발견하였다. 등은 굵어 있고 다른 나무들은 모두 테두리 안에서 위로 곧게 잘 자라고 있는데 유독 사진에서 보이는 이 나무만 등이 굽고 마디 마디가 터져 너무 힘들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이 나무에서 인생 살이의 어려움과 덧없음을 또 한번 느껴 보았다. 그리고 흡사 우리 어머니의 흰 등과 손 마디가 생각이 나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 년 열 두 달 매일 꽃을 피운다고 한다. 놀란다. 꽃도 예쁘고 그 향도 아주 좋다. 이 나무의 이름을 종업원에게 물어 보니 와루 나무라고 한다. 이 나무를 보면서 한 사람의 거친 인생에 대한 영감이 생기고 이를 시로 옮겨 보았다.



데이터 센터 구축  
CCTV 시스템 설치  
화재경보 시스템 설치  
IP 방송 시스템 구축  
VOIP 시스템 구축

스마트 팩토리?  
기업 정보화?  
네트워크?

나에게 필요한 IT Solution 은 무엇일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급  
응용프로그램 개발  
웹사이트 제작  
모바일 앱 개발


네트워크 백본 설계 및 구축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유무선 네트워크 설치

PT. KOREA TELECOM INDONESIA

SMART IT SOLUTION PROVIDER

Soho Pancoran Tower Splendor 2101,  
Jl. Let. Jend. MT. Haryono Kav. 2-3, Tebet Barat,  
Tebet, Jakarta Selatan 12810, DKI Jakarta, Indonesia


0812 8100 5468 / sshong.kti@gmail.com  
021 8062 5851 / www.koreatelecom.co.id



햄, 소시지, 신선한 야채와 육수,  
매콤한 다데기로 한층 칼칼하고 얼큰한

# 부대찌개

2~3인분 275,000 루피아





라면사리까지 더해져 한끼 식사로 손색없는  
청기와 부대찌개! 지금 바로 식당으로 오세요~.

(\*) 가격은 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데! 청기와 상품권 출시!**

고마운 마음을 청기와 상품권으로 전해보세요.

**상품권 종류** 50만 루피아, 100만 루피아  
**상품권 특징** 본 상품권은 청기와, 청기와 데라스, 청기와정육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한인포스트 캠페인 "9505 건강한 한인사회를"

## 사랑의 전화

9505는 95% 한인이 경제적으로 낙오된 5%의 한인들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동포분들에게 힘 내시라고 십시일반으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쌀과 라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나눠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sms : (천사 구구구)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0812-1004-999**

**126개월째 300여명에게 사랑나눔을**

"건강한 한인사회를 위한 우리 동포의 헌신에 감사"

\*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5~20kg, 현지라면, 생활필수용품 1박스/매월  
- 기타 - 학자금 및 생활자금  
\*\* 배달문의: 0819-3272-4757 신국장

배달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눠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2시 ~ 4시 <포장 봉사를 원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 장소 : 미원 본사 (021-470-4280) \* 필요인원 : 10명 (사전예약 0819-3272-4757 신국장)

### [대사관 안전공지] 높은 파도 주의보

- 주재국 BMKG(기상지질 히, 아래 지역은 2.5~4m의 높  
청)은 7.15(월) ~7.18(목) 까지는 7.15(월) ~7.18(목) 까지는  
기압배치에 따른 높은 파도 주  
의를 발령하였습니다.  
- 수마트라섬 서부해안  
- 순다해협 남부  
- 자바섬~NTT 남부(발리, 롬  
복섬 포함)
- 인도네시아 전 해안이  
1.25m 이상 파도가 치겠고 특  
복섬 포함)
- 위 지역 특히, 발리/롬복 해  
안에서는 빠른 풍속과 높은 파  
도로 서핑, 파라세일링, 패러글  
라이딩, 바다수영 등 수상스포  
츠와 소형페리 탑승을 자제하고  
기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제10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 한인니문화연구원-
-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 원고 모집 기간  
2019년 8월 1일~2019년 9월 20일
  - 원고 작성 기준  
- 산문 부문 A4 3쪽~5쪽 /  
시 부문 2편 이상
  - 대상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  
생), 일반인(성인)
  - 보내실 곳  
ikcskr@gmail.com과  
indonesiastory@hotmail.  
com로 동시 송부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표기

## 한국 일간지/주간지/월간지 구독 안내

+ 보너스 : 한인포스트. 주요 인니간행물

<자카르타 기준>

격일(월수금) 배달 월 90만 루피아

\* 무역부 검찰청 관세청 간행물  
당일 통관허가 품목

- 일간지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전자신문 .....
- 주간지 :  
주간조선 주간한국 주간매경 이코노미스트  
한겨레21 시사저널 시사in .....
- 월간지 :  
신동아 월간조선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과학동아 소년조선 styler 리빙센스.....

원하시는 한국의 모든 일간신문/주간지/학습지를  
인도네시아 어디든 배달해 드립니다.

신문사업자 허가업체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CV. Tiga Bintang Jaya

구독문의

**HanInPost**

한인포스트

문의전화

0812-1004-999

카톡아이디 haninpost

021-4586-9199(대) haninpost@gmail.com

## ATM 이용시 금융사기 주의

최근 발리(Bali)와 쥘레곤(Cilegon) 지역에서 ATM(현금 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에 있는 ATM 사용을 지양하고 은행 내에 있는 ATM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ATM에 넣은 카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절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해당 은행에 카드 정지를 신청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수법

-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출금액을 입력하였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고 모니터에 초기 화면이 떠 당황하는 피해자에게 뒤에 있는 현자인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화면에 비밀번호가 그대로 표시되면서 카드는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다액이 인출됨  
- 피해자가 편의점에 있는 ATM에 카드를 넣었으나 카드가

걸려 나오지 않아 편의점 직원에게 문의하자,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가 나온다고 안내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카드와 연결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액이 인출됨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대사관 당직전화(긴급시, 24시간 운영) : +62-811-852-446

## 바뀌는 재외국민·외국인 전보 규정 보니...

‘건보료 먹튀 방지법’ 16일부터 발효,,,채납 시 100% 본인 부담

6개월 이상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은 오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를 뺀 외국인은 지역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인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토록 했다.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이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 직장 가입자 포함)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 법령,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

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그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의원을 이용한 외국인은 요양급여비용(의료비) 100%를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 100만 명 육박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31일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 명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오랜 기간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를 자격별로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가 66만4529명(68.4%)이고 지역 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는 2012년 58만1천여 명에서 2018년 97만1천여 명으로 67.1%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

서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지난해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57%로 늘었다.

정부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한다. 이에 따라 55만여 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신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와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결정했다.

짧은 체류기간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12월18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Rp.  
40,000/일  
(10일 이상)

THE ULTIMATE

전국 어디서나 뽕뽕터지는 U+LTE

## 한국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외근, 출장, 여행 등 외부에 있을 때  
와이파이존 찾아 해매시나요?

스마트폰 테더링이 불편한 분들  
(데이터, 배터리부담)

**휴대용 와이파이 무제한 1일**  
하루 1GB 사용 후 속도제한 [무제한]  
동시 10명 접속가능  
출출한 LTE전국망  
빠른 LTE 속도

국내에 여행 또는 출장 온 외국인

이동업무가 잦은 직원 많은 기업체

**HanInPost**  
Service Center  
+62 813 1999 9114  
+62 812 1004 999 (한국인)  
+62 21 4586 9199  
(WiFi-013) Available WhatsApp, KakaoTalk & Line



